

“중국은 탈북 ‘난민’ 강제북송 중지 하라” 탈북동포회와 선민네트워크 명동 중국대사관 앞 집회



©선민네트워크

‘탈북동포회’(회장 한금복)과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 목사)에서는 3월 13일 오후 2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강제북송중지 호소하는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집회는 2008년 9월 3일 북경을 립파

직후 탈북민들이 자신들을 흘대하고 짐 박하며 심지어는 강제노역,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으로 고통을 안겨준 중국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하여 용서하고자 개최했다. 또 중국이 세계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로서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 중국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겼다.

하여, 선진 중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과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

로 갈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450 차 집회에는 내년에 있을 500 차 집회에 설치를 목표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탈북소녀상’ 제작 모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탈북동포회’의 ‘고향의 봄 합창단’이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곡으로 거리모임 특별공연도 함께 가졌다.

인사말로 한금복 탈북동포회 회장은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가 450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10년 전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집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월이 지나면 중국도 발전을 할 것이기에 강제북송과 같은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오늘도 여전히 강제북송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제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희망무지개 대표 이영일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못 밟았다. 때문에 그는 “강제북송은 살인행위”라며 “중국정부의 진인한 살인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450번째 서신을 낭독했다.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되는 500회 집회에는 2012년 추진하다 모금실패로 중단된 탈북소녀상 건립을 다시 추진 한다”며 “또 탈북민을 상징하는 에델바이스(꽃 말 용기, 인내) 배지를 개당 2천원에 판매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는 “6월과 10월 중 탈북 동포회 고향의 봄 합창단 모금 특별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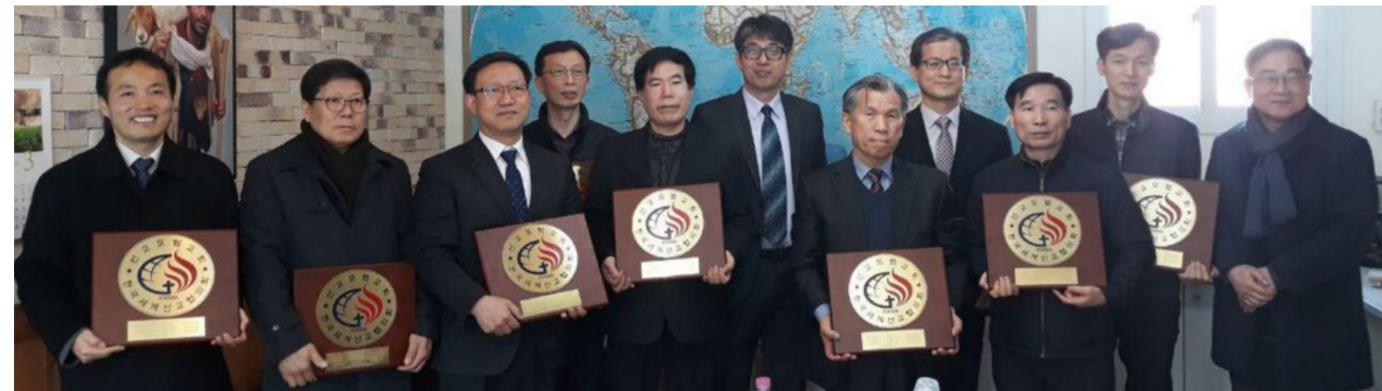
한편, ‘탈북동포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기독교 탈북민들의 자치모임으로 2007년 6월 7일 결성되어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탈북난민 구출과 국내정착을 돋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신매매와 성노예화로 고통당하는 탈북여성들의 긴급구출을 위한 ‘쉼들리 프로젝트’와 북한

식량직접지원 운동인 ‘두만강 프로젝트’, 국내 탈북민 정착을 위한 ‘한마음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탈북동포회’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중국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북경을 립파 D-1년 이었던 2007년 8, 8일부터 6차에 걸쳐 ‘올림픽성 공개회’ 기원 및 탈북난민강제북송중지호소 집회’를 가진바 있다. 나아가 이들은 올림픽이 개최된 후 2008년 9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선진중국기원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중지호소 수요집회’를 가졌다. 선민네트워크는 ‘선택된 민족, 선진민족, 선한민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86세대 목회자 중심의 기독교시민단체로 2010년 11월 1일 결성되어 탈북난민복송중지운동을 비롯한 북한 인권운동과 선진화운동, 중독예방운동, 기독교유권자운동, 탈동성애인권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더불어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이 세계 가운데 존경받은 선진국가, 선진민족이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탈북동포회와 함께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호소 수요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재정 어려워도 미자립 교회도 “선교 동참”



©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3일 GO 선교회에서 선교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선교모범 교회는 P국 선교사를 공동파송하였다.

이번 선교모범 교회 선정식을 놓고, KWMA 측은 “단지 중대형교회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입관을 깨뜨리고 전체 성도가 열 명이 안되는 작은교회들이 복음에 빛진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이 큰 모범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미자립교회도 함께 연합함으로 세계선교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도 복음의 사역에 눈을 뜯으로 어떻게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의 활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목사(복된 교회)는 “구체적 선교 현장의 기도제복을 주제로 공지하고 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어 KWMA 측은 “조국 다수의 교회에 전도와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KWMA는 곳곳에 있는 선교모범교회를 찾아내 격려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모임들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의료인의 소진(burnout) 관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3일 GO 선교회에서 선교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선교모범 교회는 다음과 같다. 경신교회(김종구목사), 복된 교회(김영주목사), 복있는교회(오경봉목사), 사랑교회(문창성목사), 새생명교회(이요셉목사), 주영광교회(이천석목사), 참좋은교회(김진인목사), 초봉교회(이인희목사), 합당한교회(성대용목사)이다.

KWMA는 2030년까지 50% 이상의 한국교회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치를 발판 삼아, 아래 지역교회에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고자 선교모범교회 현관을 제작하고 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교모범 선정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P국 선교사를 공동파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 함께 선교 현지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하고 각 교회로 흩어져 다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미자립교회도 함께 연합함으로 세계선교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도 복음의 사역에 눈을 뜯으로 어떻게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의 활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목사(복된 교회)는 “구체적 선교 현장의 기도제복을 주제로 공지하고 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께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민감해졌다”고 고백했다.

이번 선교모범 교회 선정식을 놓고, KWMA 측은 “단지 중대형교회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전체 성도가 열 명이 안되는 작은교회들이 복음에 빛진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이 큰 모범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KWMA 측은 “조국 다수의 교회에 전도와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KWMA는 곳곳에 있는 선교모범교회를 찾아내 격려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모임들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서울경제인협회, 자살예방캠페인 벌여

서울경제인협회는 3월 13일, 서울경제인협회 회의실 및 인근 거리일대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한국생명의전화의 생명 존중 가치구현을 위한 자살예방캠페인(C.A.R.E)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자살위험신호를 인식하여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그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처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회원사들의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진들이 먼저 나선 것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평가

했다. 서울경제인협회는 서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서울 25개구에 지회를 두고 회원사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여 서로 협업하고 상생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주 회원들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구조를 갖추어 나가길 기대한다.

노형구 기자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할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읽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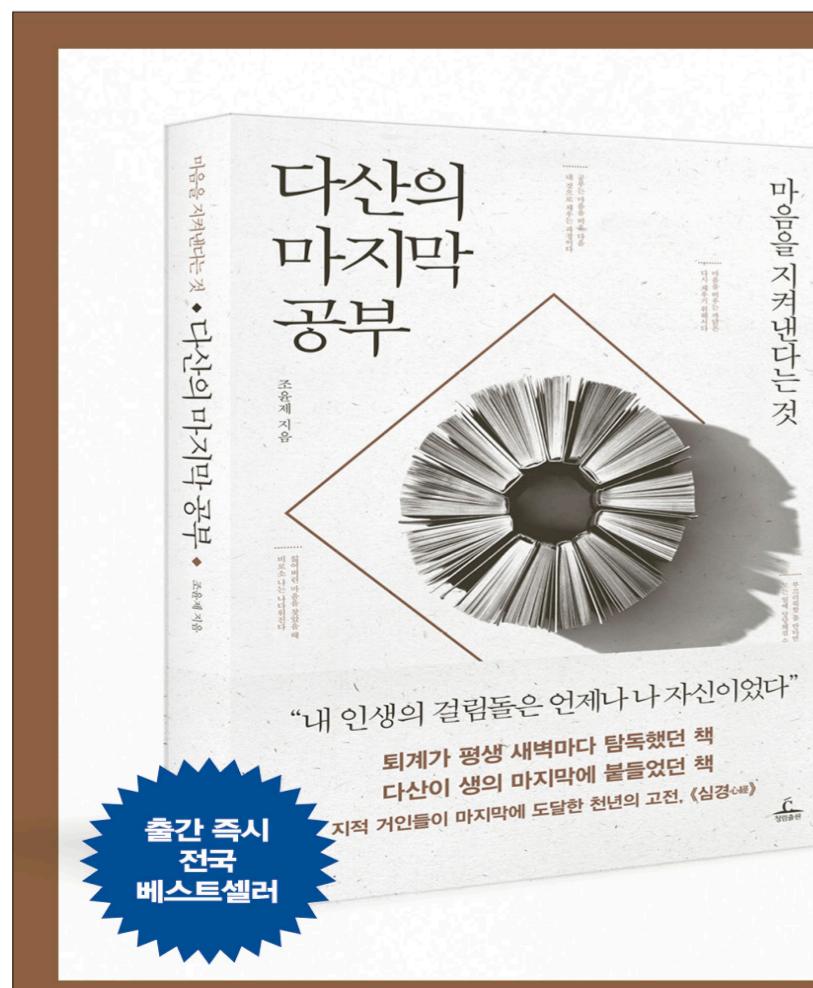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꽃관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조판제 지음 | 값 15,800원

정민출판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rim.com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1:1/2:1)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사랑’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재이지만, 그런 사랑의 스토리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만 일관되며 극중의 인물들은 마냥 행복할지 몰라도 보는 시청자에게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중간 중간에 갈등, 배신, 증오와 같은 반전이 섞여 있어야만 그 스토리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미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 버리면 그 뜨거운 사랑이 극도의 미움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미운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예당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소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애증(愛憎)(love & hate)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도 존재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에게 나타납니다.

1장 1절에 “1웃시야와 요단과 야스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세 명의 ‘유다 왕’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분열왕국 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호세아 역시 자기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벌 다리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요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한 필연적인 미움’을 수반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처럼 대조적인 두 감정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서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가 아주 명쾌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일견 서로 대립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로 일으키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1.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장 2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나 하시니 30여년에 그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리므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녀가 실제로 인물이며, 음란한 성품이 있는 여인 내지는 아예 창녀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비정상적인 결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주한 꿀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호세아 자신부터 피부에 와 닿도록 절감하면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후 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1절에서 본 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였는데, 그의 조상은 저 악명 높은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정화의 기운을 불어 넣었던 예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후는 바알 우상을 일단 타파해 놓고도 여호와 신앙에 그 우상숭배 의식의 잔재를 그대로 남겨두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으니까 신앙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이들을 지어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치열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우상과 타협하는 혼합종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싫어하시고 치를 떠실 수밖에 없는, 실제로 가증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로 하

여금 똑똑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애말로 기상천외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실생활에서 그런 불결한 결혼 생활을 명령하신다는 없으나, 아마도 호세아의 결혼은 계시를 받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종의 ‘가상현실’이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하는 해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뚜렷한 역사적 실재성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므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녀가 실제로 인물이며, 음란한 성품이 있는 여인 내지는 아예 창녀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비정상적인 결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주한 꿀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호세아 자신부터 피부에 와 닿도록 절감하면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후 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1절에서 본 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였는데, 그의 조상은 저 악명 높은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정화의 기운을 불어 넣었던 예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후는 바알 우상을 일단 타파해 놓고도 여호와 신앙에 그 우상숭배 의식의 잔재를 그대로 남겨두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호세아에게 그 결혼을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이들을 지어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지명으로서 바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지명으로서 바로 우상과 타협하는 혼합종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싫어하시고 치를 떠실 수밖에 없는, 실제로 가증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첫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는”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저주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딸에게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금을 없음’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육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소금도 금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첫아들의 이름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는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8절과 9절에 “8고멜이 로루하마를 젓고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는 저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셋째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로암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뜻은 9절에 부가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내 백성이 아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타락’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금을 예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가리켜 이처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은 그자 애모호한 추상적 사상을 나열하든지 기껏해야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처럼 죄악한 죄인이라고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이며, 따라서 사람이 삶에 할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경전에 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진단이 없는 종교에 바른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환자에게 무조건 다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좋은 말만 해 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사는 고칠 실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침된 종교, 여호와 종교만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매섭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이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미움’ -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멀쩡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함을 깨닫고 음행을 저지른 자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미움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택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감격을 최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1장 10절 이하 2장 1절에 “10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되어서 해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를 것임이로다 12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고 기록했습니다.

2장 1절은 문맥상 2장 2절이 아니라 1장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 앞의 내용과 너무나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그러나”라는 한마디의 접속사 이후 실로 같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분위기가 삽시간에 꽉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4절과 5절에서는 멀망의 골짜기 “이스라엘”에서 활이 꺾이고 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여기 10절에 와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해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칭대한 민족을 이를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며 “로암미라고 명명하셨던 바로 “그 곳에서” 그 뜻같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의 “암미(내 백성)”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장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원래 이어진 문단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단적인 전환입니다.

제다가 설혹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기적적인 회생의 구원이 주어진다면 한마디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처럼 음란한 배교로 인하여 멀망 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하게 된 것인가요?

앞서 7절에 이미 그 대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바로 “7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금을 끌어들이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논평

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작명을 통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저주가 연이어지는 와중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라는, 일견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이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전까지의 문맥은 오로지 ‘저주’와 ‘멸망’ 일색입니다.

심지어 바로 그 다음의 8절과 9절에서도 여전히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만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쑥 들어오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라는 희한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극히 미워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애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극적인 구원은 과연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그것은 “활과 캄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무슨 정치적, 군사적 구세주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를 것임이로다”는 예언에 나오는 “한 우두머리”를 통해 성취될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말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인데, 바로 ‘오실 메시야’를 가리킵니다.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날 메시아

야말로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그려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1장 서두에서부터 이미 암시를 해왔습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본인이 북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조 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창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호세아가 자기 민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오직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야’ 그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즉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분은 비단 남조 유다 백성뿐 아니라 북조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을 호세아는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끌 것임이로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앞서 4월에서 ‘하나님이 흘으신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저주를 받았던 그 두려움이 커던 만큼, 그 저주에서 벗어나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감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욱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나 가능성성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의 통치자’ 곧 메시아

로 보내어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깃발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깊어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공짜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에 휘둘린 구원은 ‘오직 은혜’요 ‘전적 은혜’에 의한 것일 따름입니다.

원래는 “로루하마(긍휼 없는 자)”라 불리던 백성이 하루아침에 “루하마(긍휼 얻은 자)”가 되고, 당연히 ‘로암미’(내 백성 아닌 자)일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암미’(내 백성)으로 회복된 것은 오직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족의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라 100퍼센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자의 구원받은 감격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조금씩, 우리의 선행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처럼 순전히 ‘자신의 공로’에 기인해서 완성되는 구원에는 이와 같은 큰 감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자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 정도의, 순전히 자기중심의 자화자찬만 남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구원이라는 것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친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아무런 동기도, 이유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라고는 텔끝만чество도 없이 ‘완전 타락’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아니 영별을 받

아 마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던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종족시켜 버리신 대속의 조건에 의해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공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죄인에게는 전혀 뜻밖의 사랑이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방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게 된 신자 쪽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저 넘쳐 솟구치는 감격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자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찬 310장)라고 놀라며, 오로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별 같은 날 위해 큰 해 봤으셨나’(찬 143장)라고 충격적인 감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이런 감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무당 종교’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신과 흉정하는 줄다리기만 있고 ‘주시는 만큼 버치겠다’는 냉정한 ‘give and take’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성찰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헬프서비스 종교’에 그 무슨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자신의 무지나 깨달을 줄 모르는 끝없는 방황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지 않는 교만한 가득한 뿐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전부를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아는 성도의 입에서는 그런 계산적인 복체나 외식적인 염불 대신에 오직 감격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을 향해 늘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악조건과 혼조건만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심령으로 체험함으로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증(愛憎)’이라는 것은 실상 인간관계에서는 변덕과 변심의 산물이며 과로움과 고통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과 미움은 이처럼 공묘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애증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일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깨달에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은 원래가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우상종교이며, 그런 깨달에 사람의 생각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들의 고리나 경전에 해당조합으로서 일관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런 종교들은 기껏해야 공의나 긍휼, 둘 중에 하나님만 강조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사실상 그렇게 나누어 놓고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상종교의 공의는 기껏 ‘사회 정의’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뿐, 각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악을 공의롭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의 긍휼은 기껏 ‘이웃 사랑’의 수준에서 끝날 뿐, 하나님께서 사람의 봄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타낸 이 놀랍고도 무궁한 은혜의 비슷한 것에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종교만이 이처럼 공의와 은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엄하게만 다스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는 아버지가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식이 깨닫에 그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을 미워하면서 고쳐 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인 깨닫에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무섭고도 당연한 저주가 선포된 바로 ‘그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바로 그처럼 의롭고도 긍휼하신 아버지입니다.

악을 지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자신이 절망적인 ‘로암미’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당신의 택자를 끌까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하마’의 자녀가 됨으로써,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구원의 아버지께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까지 페미니즘으로 오염? 여가부 해체하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논평

하는 페미니즘은 이미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페미니즘 사상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조직 중에 그 어느 부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폐지’나 ‘해체’의 국민 요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하지만 여가부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지’와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다.

먼저, 여가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의 형성과 변질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주의’라고 명명되며, 여성들의 접근이 배제된 권리를 행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투표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명시적인 제도적 차별을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일어났고 이는 남녀 차별을 시정하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근거는 남녀평등의 가치이다. 남성에 비해 그 권리가 현격히 제한되는 여성의 권리와 남성이 누리는 만큼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약화되지 않았다. 아니, 약화될 수 없었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력들은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권력, 조직력, 재력 등이 약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제도적 평등을 주장하면 이들은 문화적 평등에 대한 주장을으로 옮겨갔다. 제도 개혁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궁극적인 평등의 실현이라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평등은 제도적 평등에 비해 매우 추상적인 목표였다. 사회 문화와 인간 의식의 변화를 실족하기는 어렵고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목표는 조직 운영과 투쟁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정

이 필요했고, 결국 주체는 ‘여성’, 대상은 ‘남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페미니즘 사상의 약화를 막고 페미니즘 조직의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운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 세력이 주장한 제도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성취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세력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이며 수치화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던 그들은 결과의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사회에 강요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과 사기업 등에 각종 ‘여성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 일례로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위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격차지수에서 대한민국이

116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격차지수는 국가간 발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남녀간의 차이만을 순위로 쉽게 디테일로서 이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변질된 페미니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페미니즘의 주장과 흡사한 이탈리즘의 등장은 페미니즘 변질에 대한 반발 중 하나이다. 이탈리즘은 페미니즘이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남성 차별적인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며, 남녀평등의 가치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변질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주체인 여성에게도 외연받기 시작했다. 지난 달 18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대기업 여성 임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여성 임원들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지 말 것’, ‘성별을 떠나 능력 위주의 인재 발굴’ 등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이는 여성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변질된 페미니즘을 신주단지처럼 불잡고 있는 여가부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

고 위험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을 혐오해도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 주장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조직이 아니다. 아이들의 외모를 규제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국민의 자주를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여가부의 행태를 암묵적으로 옹호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 번 폐털을 밟기 시작한 자전거는 폐털을 멈출 수 없다. 페미니즘이라는 폐털은 멈출 수가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평등과 자주를 압박하는 반헌법적 정부조직에 대해 ‘해체’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합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유학원행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